

# 영상과 서예로 만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



## 민중음악가 박종화씨 서예전



5월 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노래 외연 넓히기 위해 붓 들어”

지난 정권서 창작한 20점 선 보여

책 '서예와 함께하는 임 행진곡'

4월 28일 출판기념회도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정부가 공식행사에서 이 노래의 제창을 금지하면서 화제가 되어서 퍼졌지요. 독재에 맞선 민중의 항쟁으로 일군 민주화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이 압제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죠.”

오월 광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래를 모티브로 창작된 서예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중음악가로 알려진 광주 출신 박종화(사진)씨가 작곡가 데뷔 30년 기념음반 출시를 마치고 이번에는 서예가로서 6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박 씨는 90년대 초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투쟁의 한길로’, ‘바쳐야 한다’ 등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5월 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제10옥사)에서 열리는 ‘영상과 함께하는 박종화 서예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정권에서 창작한 서예작품 20점을 선보인다.

박 씨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금지된 이후로 공연 화가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노래의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나는 붓을 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은 서울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그 의미 또한 남다르다. 1908년 조선통감부가 의병 등 반일세력을 수용할 목적으로 건립했으며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정치·사회문제와 관련한 사상범이 많이 투옥됐다. 그러다 독립운동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 전시와 홍보를 위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개관됐다.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어떻게 서예 작품으로 재창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서예가의 창작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1년여의 시간이 걸렸지요. 물론 지난 1년 사이 정부가 바뀌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지만 노래에 담긴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탄압받을 때 글씨를 썼기 때문에 당시의 감성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며 “노래 한곡도 제대로 못 부르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작품은 50~60m 복도에 전시할 예정이다. 천정에는 액정을 걸어 ‘임을 위한 행진곡’(약 2분5초)에 서예 작품을 입힌 영상이 흘러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박 씨는 이번 전시회를 오래 전에 기획했다. 다행히 정부가 바뀌어 이제는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노래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예 전시회를 앞두고 책으로도 노래에 담긴 역사적 사연들을 풀어냈다.

이번에 펴낸 ‘서예와 함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 작곡의 시작과 완성까지 얽힌 사연, 녹음과정과 참여한 사람들의 연습 과정, 배포 과정의 스토리 등을 담고 있다.

“37년이 지나버린 작업들이라 참여한 이들의 기억이 흐릿합니다. 남은 기록들도 마땅하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정리한 내용에도 여단가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그들을 없애기 위해 퍼즐 맞추듯 맞추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씨는 민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시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80년대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기성시 같은 시인들’이 많이 있어 자신은 그저 흥미를 내는 정도였다고 겸손해했다. 시집 1992년 ‘바쳐야 한다’ 이후 3집까지 발표를 할 정도로 시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는 1982년 전남대 신방과에 입학하면서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된다. 대학을 19년만인 지난 2001년에 졸업한 사실에서 보듯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전대협 통일결사대 시위사건으로 구속됐으며, ‘박종화 창작곡’ 1,2,3집 발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학창시절 학업보다는 투쟁의 삶을 살았지만 후회가 없다”는 그는 “앞으로도 예술활동을 통해 시대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중가요, 민중예술하면 지나치게 억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지나치게 분노를 상승시키는 측면보다는 내면을 가리키려는, 그러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창작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책 ‘서예와 함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출판 기념회가 오는 28일 오후 5시 18분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다. 문의 010-4611-309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화려한 색채의 향연과 담백한 수묵의 만남

광주문예회관 5월 9일까지 정흥기·천명연 2인전

화려한 색채의 향연과 담백한 수묵의 만남

광주문예회관(관장 서병천)은 중견작가 정흥기·천명연 작가 초청 2인전을 오는 5월9일까지 진행한다. ‘풍경, 두 개의 시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두 작가의 각기 다른 시선과 해석을 만날 수 있는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정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지역을 답사하며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정경에 주목한다. 제주, 강원, 전라도 지역의 자연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풍요로운 빛과 자연이 전해주는 향기를 화려한 색채로 묘사한다.

천 작가는 많은 풍경 중에서도 특히 ‘산’이라는 동양화에서의 전통적인 소재를 그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며, 담백한 색채와 필력을 더해 새로운 산수화를 선보인다.

정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학과와 동대학원을 나왔으며 현재 고려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천 작가는 조선대 한국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관람시간은 공연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공연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연 일정은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흥기 작 '제주 하라 철쭉'



천명연 작 '수묵의 여행'

## 광주시립미술관 25일 '풍경 사이'展 참여 작가와 대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현재 광주시립사립전시관에서 열고 있는 '풍경 사이' 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대화'를 25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지난달 열린 1차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이정록, 지성배 작가가 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에는 김혜원, 박일구, 김영태 작가가 참여한다.

'응답형 시리즈-풍경'을 작업한 김혜원 작가는

산업사회의 경제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자연, 시설물로 인공화된 자연 등을 작가의 답답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박일구 작가는 '기록과 예술'이라는 사진의 두 속성을 동시에 체감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확장된 사유를 풀어낸다.

김영태 작가는 '시간의 그림자'시리즈를 통해 산에 얽힌 체감된 기억들을 재현하고 있다. 문의 062-613-71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오늘 '광주읍성과 관아'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정신사의 근원을 찾고 지역학으로서의 광주학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한 '광주학 콜로키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3일 오후 5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광주읍성과 관아'라는 주제로 1차 광주학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은 라틴어 '모여서 함께 말한다'는 뜻이다. 광주 읍성은 오랜 기간 동안 광주 행정의 중심지였고, 많은 역사 문화가 담겨져 있으나 현재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광주 읍성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광주의 원천적인 역사·문화자원을 찾아보자는 취지가 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김덕진 교수(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가 발표한다. 천덕영 교수(전남대 건축학과), 조광철 학예사(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 지역 연구자와 전문가가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광주학콜로키움은 매일 4주차(4월, 5월, 6월, 7월, 10월, 11월/총6회) 월요일 오후 5시에 '광주 근대 도시사실', '광주천이 품은 역사'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5월 28일 2차 콜로키움에서는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장 '광주 근대 도시사실'이란 주제가 발표된다. 정책연구원 062-670-743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대님의 여행의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문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성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과주향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겨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